

# 괴테의 자연학,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예술,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신태규 과학예술연구소 소장  
남현미 공주대 박사과정

## I. 서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우리의 몸은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이고 전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계적 연결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하며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대학은 꼭 가야하는가? 한국의 제도권 교육은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아예 없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직면했으나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의 제도권 교육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양육의 기능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계산 능력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고 거대 언어 모델(LLM)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처리와 방대한 웹검색을 통해 평균적인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문장으로 쏟아내는 시대인데 아이들을 지식을 먹는 동물로 사육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시켰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이들이 각자 처한 발달의 단계 혹은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작 교육의 본질이어야 할 측면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저마다의 내면에 잠재하는 능력과 재능을 꺼내어(educere)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여전히 사회와 기성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입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형태를 띠기에 이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자면 교육의 전 과정 특히 평가의 과정이 심각하게 경직성을 띠게 된다.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이 경직된 교육 일상 속에서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의 과정과 내용이 어떠한 모두 대학 입시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교육 활동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발도르프 교육이 던지는 시사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을 경외심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라”는 경구에서 그 본질을 잘 볼 수 있다. 그 근원적 시작은 <파우스트>로 유명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다.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자신이 창시한 인지학 (anthroposophy)의 인간발달론에 근거하여 발도르프 교육을 태동시켰는데 그가 괴테에게 지대

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연과학의 도그마와 동맥경화에 빠진 근대 철학의 관점”<sup>1)</sup> 때문에 문힌 괴테-슈타이너의 ‘과학예술’과 ‘교육예술’이 이 시대 교육, 특히 한국의 교육에 던지는 시사점들은 무엇일까?

## II. 발도르프 학교란?

“교육에서 포기할 수 없는 주체와 대상은 개별적 인간이며 그 인간의 형성 과정이다.”<sup>2)</sup> 발도르프 학교는 1919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자유발도르프학교(Freie Waldorfschule)’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12년제 사립 학교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독일, 발도르프 아스토리아(Waldorf-Astoria)라는 담배 공장의 사장인 에밀 몰트(Emil Molt)가 회사의 직원 자녀들을 위한 좋은 학교를 지어줄 것을 루돌프 슈타이너에게 위탁하여 설립되었다. 교육은 사회의 다른 영역들, 특히 ‘사회삼원론’에 따라 경제와 법·제도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에 ‘자유’라는 글자가 거의 모든 발도르프 학교 앞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취지로 무엇보다 ‘내적 자유’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는 나치 정부에 의해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들은 문을 닫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발도르프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그 뒤에는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났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발도르프 학교들이 더 늘어났고 소련에도 발도르프 학교들이 생겼다. 현재 한국에 약 20개, 전 세계 80여 국가에서 1700개가 넘는 일종의 세계적 ‘공동체’로 성장했다. 우선 공동체라는 말을 기억해두자. 특이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순수한’ 발도르프 학교는 없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수한 절충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이상적인 모델(대안)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각자 발도르프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바티칸(교황청)’과 같은 중앙기구도 없고 교육위원회도 없다. 그냥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발도르프 교육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묻기도 한다.<sup>3)</sup> 발도르프 교육운동은 풀뿌리 조직 운동의 원형과도 같다. 국가나 종교단체가 운영하지 않으며 상업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장 큰 세계적 교육 운동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으로서 발도르프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 무엇보다 제도권 교육과 크게 다른 외형적 차이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한 명의 교사가 담임을 연속해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리고 시험과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

1) 마리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서문 중에서

2) 루돌프 슈타이너

3)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 영상.

‘발도르프 교육예술’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예술적으로 교육한다” 혹은 “교육에서 예술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왜 교육예술이라고 하는지, 왜 발도르프 학교는 앞에 ‘자유’가 들어가는지 잘 설명된 글을 소개한다.

‘교육예술’이란 말이 슈타이너의 사상 속에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특히 교육이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갑자기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의지의 힘과 감정의 힘을 아이로부터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중략) 최종 목표는, 학생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이 무엇이 될 건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무엇이 될 건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기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타이너 교육이 ‘자유에 이르는 교육’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sup>4)</sup>

### Ⅲ. 발도르프 교육의 인간관, 학생관, 교사관, 학교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로 요약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지 생각해보자. 대표적으로 현대 의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본다. 현대 의학, 특히 서양 의학에서는 인간을 개별 장기로 구성된, 살아있는 기계로 본다. 그 기능의 훼손 혹은 장애 유무를 살펴 많은 경우 대증 처방을 내린다. 장기의 병든 부분은 잘라내어 꿰매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으면서 멀쩡한 부분이라도 기능해서 적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건강은 차치하고 말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다. 두통이 있거나 어딘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는다. 나는 지금도 동네 내과에서 감기든, 독감이든, 알레르기든 무조건 스테로이드제는 왜 기본적으로 처방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전형적인 대증 치료는 인간을 생명이 있는 기계로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어떤 부위가 아프거나 몸에서 열이 나면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병증을 다루어야 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그 증상에만 대응하기 급급하다. 이런 관점과 태도는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는 현대 자연과학이 그 방법론으로 환원적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여담이자 웃기에 좋은 글이지만 글을 읽고 너무나 쓴맛이 입안에 계속 맴돌고 있어서 소개한다. 『어머니의 기원』이라는 에세이의 저자인 인문학자이자 소설가인 시리 허스트베트가 ‘문학의 미래’라는 챕터에서 얼마남지 않은 문학의 정전(canon) 텍스트를 이야기하며 씩씩해하는 장면이다:

---

4) 고야스 미치코·아케마스 유우지, 『슈타이너 학교의 예술로서의 교육』, 김수정 역, 도서출판 밝은누리, pp. 83-86.

우리는 이제 공유하는 정전 텍스트가 몇 개 남지 않은 세계에 살게 되었다. 전문화로 인해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끊임없이 난항에 부딪힌다. 같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비행기에서 신경의학 전문의의 옆자리에 앉았던 실화를 에세이에 쓴 적이 있다. 그가 신경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몹시 흥미로운 알츠하이머병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경의학은 내가 아는 분야여서 나는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다. 우리의 대화가 잠시 끊어졌을 때, 그는 내 무릎을 보더니 무슨 책을 읽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나 저것이나 Either/or』 를 다시 읽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키에르케고르가 누굽니까?” 충격을 받았지만 태연한 척했다. 치매 이야기를 좀 더 나눈 후 나는 물었다. “겨울 뉴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 뉴런은 90년대 초 마카크원숭이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적인 화두였다. 그는 멍한 얼굴로 나를 보더니 물었다. “겨울 뉴런이 뭐니까?”

신경의학자가 키에르케고르나 겨울 뉴런을 모른다는 사실이 나로서도 놀랍지만 그만큼 전문 분야가 극세분화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생각하면 또 수궁이 가기도 한다. 다만 함께 읽는 텍스트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타인과 공동체라는 타인들의 인간적 집합체에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기만 하는 건 아닌지 두렵다.

현대 의학에서 이런 흐름은 애초부터 당연시 되었고 인공 장기도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는 등 시대의 흐름을 타고 더욱 첨예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간이, 인체가 무작정 각각의 장기로 환원되지도 않고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한다고 질병과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인간관이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장하며 변화하는 사람의 본질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본성을 고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sup>5)</sup>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은 신체·영혼·정신의 통합적 존재로 보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을 예술로 간주하는 ‘교육예술(Erziehungskunst)’을 표방하며 다양한 표상 형식을 활용하고 교사의 이야기(스토리텔링)를 통해 수업을 예술적으로 구성한다. 학생의 개별성과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를 경외심으로 맞이하기를, 아이들은 교사와 그가 지닌 ‘사랑 가득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기를 요청한다. 여기서 권위는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권위가 아니며 슈타이너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거나 존경심

5) 루돌프 슈타이너

을 갖고 교사를 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생명체(에테르체)의 살아있는 힘이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sup>6)</sup>

교습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중요하지요. 발도르프 학교 내에서는, 교습 내용을 수업의 모든 단계에서 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의지 형성, 감성 형성, 오성 형성과 관련하여 인류 발달의 과정 안에서 전진하도록 돕는 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각 수업 과목이 지식 전달과 관련된 어떠한 자기 목적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수업 과목은 교사의 손 안에서 예술로 변환되어서, 교사의 취급을 통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효과가 미치도록 합니다. 진정으로 파악된 인류 발달의 의미에서, 해당되는 발달 연령 안에 학생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삶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삶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sup>7)</sup>

학교 일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발달 단계’에 맞는 어학, 수학, 자연과학, 지리 여러 분야의 에포크(3~5주간의 주기 집중수업)와 더불어 미적 감각을 가꾸고 예술적 정서를 일깨우는 수공예, 미술, 음악 수업,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외국어 수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에포크 수업은 계절과 절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이 발달 단계는 인간의 본질이 물질체, 생명(형성)체(에테르체), 감정체(아스트랄체), 자아체로 이루어졌다는 ‘사구성체론’에 의해 설명된다. 인지학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사람은 7년의 발달 주기를 통해 세 번의 ‘탄생’을 겪는다고 본다. 첫 번째 탄생인 물질체의 탄생은 비교적 자명할 것이다. 두 번째 탄생인 에테르체의 탄생은 이갈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사춘기와 함께 아스트랄체의 탄생이 온다고 슈타이너는 설명한다. 발도르프 교육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독창적이고 고유한 인간관에 있다. 그 사상적 근간이 되는 것이 슈타이너가 창시한 인지학이다.

얼핏 익숙한 개념인데 생명, 감정, 물질, 자아에 ‘~체’라는 단어가 붙으니 생소하다. 인간이 평균 약 40조 개의 세포를 가진 동물로 영장류, 척추동물, 유일하게 직립 보행하는 생물이라는 물질적, 생물 분류학적, 분석적 설명을 넘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모양과 기능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개념들은 자연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나로서도 처음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해의 폭과 깊이가 커졌다. 이제는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싶을 만큼 괴테-슈타이너가 만든 이 담론에 빠져들었고 앞으로 현대의 자연 과학과 철학의 언어로 ‘번역’해 나가고자 한다.

6) 정운경, “발도르프학교 수업의 특징”, 『발도르프교육연구』, 2011, 3:1, pp. 49-67 ; 루돌프 슈타이너,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 p. 66.

7)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와 그 정신』, 최혜경 역, 도서출판 밝은누리, pp. 22-23.

이처럼 슈타이너의 인지학에서는 인간을 생물학적 신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도덕과 정신의 세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발달하는 존재로 본다. 슈타이너의 관심사는 이 세 차원을 모두 고려하면서 아이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여 발달의 조건들로부터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8)</sup>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기계에 관해 상세하고도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만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예술에서도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그 각각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sup>9)</sup>

발도르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교육적 일상으로 채워지는 8년의 담임 과정만 거쳐도 충분히 공감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자란다. 창의성과 사회성이 충만하며 공감하고 행동하는 인간이야말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미래가 요구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아닐까?

#### IV. 괴테의 자연학 - 식물학과 색채론 그리고 슈타이너

괴테의 과학적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현상 그 이상을 추측하거나 현상을 추상적 개념이나 수학적 모델로 대체하기보다는, 현상 자체의 경험으로 들어가 연구 전반에 걸쳐 그 현상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현상 그 자체에 머물면서 괴테는 자연의 통일성과 섭리를 ‘볼 수’있다고 주장했다.<sup>10)</sup>

루돌프 슈타이너는 괴테의 색채론, 괴테의 자연관을 영적 세계관의 기초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다고 그의 부인 마리 슈타이너는 전한다.<sup>11)</sup>

그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영학의 기초 형성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정신과 과학자의 사고를  
그 단단한 형식주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

8)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아동교육』, “이 책에 대하여” 중. 코르넬리우스 볼렌.

9) 루돌프 슈타이너

10) 대나 폴리, 『괴테 과학:식물 변태의 현상학적 고찰』, 김광선 역, 인지학 사회 2022년 봄호.

11) 『색채의 본질』, p. 7, 머리말.

또한 우주친화적인 진정한 존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사고를 내면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sup>12)</sup>

‘과학예술’이라는 연구소의 이름이 발도르프 교육의 ‘교육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처럼 ‘예술가의 정신과 과학자의 사고’는 과학예술연구소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그 시초가 괴테의 자연학임을 숨길 수가 없다. 19세기의 polymath인 괴테와 19세기에 시작하여 20세기까지 걸친 슈타이너의 뒤를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걸친 발 표자가 창립한 과학예술연구소가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예술가는 인간을 창조적 언어에서 격리시키는 단단한 지성의 광물적인 벽을 깨뜨려야 한다”는 마리 슈타이너의 말처럼, 또 루돌프 슈타이너가 시도한 것처럼 ‘경직된 현대적 사고’를 깨뜨리고 ‘틀에 박힌 형식에서 인간의 사고를 해방’시킬 때 인간은 단순히 신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로고스의 지배를 받는 분석적 학문이 한계에 부딪힐 때 영성으로 승화된 지성이 그 한계의 광물적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식과 정보가 차고 넘쳐 지성이 과잉인 시대일수록 영성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괴테와 슈타이너는 그런 점에서 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한다. 괴테와 슈타이너와 관련하여 많은 번역자나 학자들이 괴테의 자연‘과학’을 이야기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과학이 라틴어 동사 scio에서 파생된 명사 scientia의 영어 단어인 science임을 잠시 망각한 탓이다. 지식, 앎이라는 뜻의 scientia의 동사인 scio는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과학이란 하나하나 쪼개고 나누는 작업, 즉 분석을 주요 탐구 방법론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 현대 자연과학(natural science, Naturwissenschaft)이 사용하는 환원(주의)적인 방법론이 이것인데 괴테는 그와 정반대로 전체론적(wholistic)인 방법론으로 자연을 탐구했다. 환원주의란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하여 이해하려는 인식적 정향으로 괴테의 자연관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원문의 제목이 ‘Zur Naturwissenschaft im allgemeinen’이라고 영어의 science로 번역되는 독일어 용어가 쓰였지만 자연 과학이 아니라 ‘자연학’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실제로 괴테는 관계성이나 개인적 경험보다 정량적인 측정과 환원적으로 축소되고 전체로부터 고립된 실험에 중점을 두는 물질주의적 접근으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사람의 삶 전체는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

12) 루돌프 슈타이너, 『신비극』 중에서.

의 미래 생애를 자기 안에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겨우 잎사귀만 달려 있는 식물을 보고도 우리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그 가지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식물은 이미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질을 품고 있습니다.<sup>13)</sup>

이 글을 읽고 괴테의 원형식물(Urpflanz, Archetypal Plant)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슈타이너가 이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나 폴리는 “우리가 자연의 본질적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제공하는 예처럼, 우리 스스로가 유연하고 변화 가능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하며 관찰을 중요시하는 괴테의 탐구방법론을 강조한다 :

생명과 생명의 과정은 선형이 아니지만, 방향성이 있다. 이 방향성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패턴이 있다. 괴테가 자신의 변태 이론을 발견하고 발전시킨 것은 자연의 합일성과 법칙성을 발견하고 ‘보는’ 사명을 통해, 특히 식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였다<sup>14)</sup>

여기서 “변태는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아이디어를 외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sup>15)</sup>

이렇듯 슈타이너가 괴테로부터 받은 영향의 첫째는 변태(Metamorphosis)와 원형적 식물이 다. 그 둘째는 색채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삶을 식물의 그것과 같으며 비유를 통해 설명했고 괴테의 색채론을 발전시켜 “색채는 물리학의 연구분야인 동시에 심리학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라며 괴테아눔에서 화가들을 대상으로 색채의 본질에 대해 강연을 했다.

과연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의 색채론과 괴테의 색채론 중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하나는 틀리고 다른 하나만 맞을까? 슈타이너는 이에 대해 위와 같이 명쾌하게 답을 내렸다.<sup>16)</sup>

눈이 색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 화학자는 색을 띠는 물질의 화학적 성분을 연구했고 물리학자는 물체를 만나면 반사하거나 흡수되거나 혹은 통과하는 빛의 광학적 성질과 빛의 생성에 대한 양자역학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화가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적합한 물감을 찾고 섞어내는 일에 열심이다.

---

13) 루돌프 슈타이너,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 p. 28.

14) 『괴테 과학: 식물 변태의 현상학적 고찰』

15) Brady, “The Idea in Nature”, p. 104. (『괴테 과학: 식물 변태의 현상학적 고찰』에서 재인용).

16) 루돌프 슈타이너, 『색채의 본질』, 양역관·다카하시 이와오 역, 도서출판 물병자리.



여러 분야의 노력 중에서 최근 눈부시게 발전한 뇌·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괴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일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스콧 카스탄과 영국의 대표적 화가 스티븐 파딩이 쓴 책 『온 컬러』에서 던진 질문을 받아보자:

색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독일의 컬러 공학자이자 색채심리학자인 악셀 뷔터가 그의 책 『색, 빛의 언어』에서 멋지게 해낸다: “색은 우리의 감각 가운데 가장 빠르고 성능이 좋으며 영향력 있는 감각적 매체라 할 수 있다. 색은 자연의 환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줄 뿐 아니라, 색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도 밝혀준다. 이때 색을 각각의 의미와 작용으로부터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가 특정 색을 의식하자마자 뇌는 이미 해석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색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색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중략) 색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생물학적·문화적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색은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 객관적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색은 세상을 향한 창이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느끼는 모든 감각과 조화를 이룬다. 나아가 색이 발휘하는 힘은 인간이라는 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색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의사소통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자연의 색에는 명확한 생물학적 기능이 있으며...

현대 자연 과학이 파악한 색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여기까지다. 한편 슈타이너는 “보통 우리는 색깔을 띠고 나타나는 사물의 인상에 따라 색채 세계를 인식한다”며, 『색채의 본질』에서 괴테가 “물체가 어떻게 색채로 나타나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멈추고 말았다고 판단하고 색채 원근법을 제안한다. 슈타이너는 색채라는 것이 열이나 빛과 같이 물질계와 영계의 경계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둘 보다 더 물질 쪽에 가까운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색을 통해서 영계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색채의 근원적 성격에는 영계가 있고 색채가 대우주의 혼이라고 판단한다. 이 부분이 현대 물리학과 물리 화학을 전공한 내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왜 빨강은 빨강인가, 왜 빨강이 주는 느낌은 파랑이나 초록이 주는 느낌과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물리학과 화학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생리학이나 뇌과학이 답을 할 수 있는가? ‘왜?’라는 한 글자의 질문 앞에 자연 과학은 한없이 초라해진다.

## V. 결론 : 발도르프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우리는 과연 몽상가인가?

학교가 국가의 일이라는 생각은, 현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은 누구나 비현실적인 ‘몽상가’로 간주된다.<sup>17)</sup>

---

17) 루돌프 슈타이너

슈타이너는 이어, “모든 수준에서 학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일을 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형태로 인간을 빚어낸다. 학교의 운영 방식은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많이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국가의 전체 질서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전인적인 인간을 위한 교육이란 말이, 국가에 유용한 하인 만들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sup>18)</sup>고 정곡을 찌른다.

100년도 훌쩍 넘은 지금도 이 말이 그리 틀리지 않다고 본다. 중앙 정부의 교육부 고위관료들과 지자체의 민선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그에 따른 정책, 그리고 그들 개인의 의지에 따라 교육 현장의 일상이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의 주도로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큰 틀에서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 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충실히 복무하고 있고 그 최전선에 입시 제도가 있다.

아직도 제도권 교육을 받든 대안 교육을 받든 대다수의 부모와 학생들은 결국 대학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가장 크게 고민한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을 꼭 가야 하는지를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4년이라는 시간, 수천만 원의 등록금과 생활비라는 기회 비용을 생각할 때 소수의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과를 꼭 졸업해야 할까? 이 질문은 몇 개의 소위 명문대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들이 매년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이 답을 해준다. 아이들이 그리는 미래에 대학 공부야 필요가 없는데 입시에 목을 맬 필요가 있는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매여서 월급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 박탈당한 자유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다. 심지어 힘들게 임용 고시를 통과한 신입 교사들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년이 보장되고 직원 복지가 좋으며 임금도 평균 이상인 직장의 정규 직원이 되는 것이 많은 대학생들의 1순위 희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관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부동산 투자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자영업으로 고소득을 얻는 젊은 세대들의 사례가 강의와 SNS로 널리 전파되면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 강의, 전자책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젊은 세대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경제적 자유’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원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온 젊은 세대들이 정작 그 꿈을 이룬 뒤에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초래한 비극이 아닐까?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를 것인가?

---

18) “사회적 유기체의 갱신: 사회 삼중적 질서와 교육의 자유”(신문 ‘삼중 사회 질서’에 실렸던 20개 기고문 중 네 번째 글. 인지학 사회 2022년 가을호)

그러나 어떤 수업이든 종교적 토대 없이는 결코 이끌 수 없습니다. 종교가 빠져 있는 학교는 단순한 망상입니다. (중략) 기본적으로 깊은 종교적 분위기 안에 있는 사람이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sup>19)</sup>

이 기회에 종교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안 학교들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귀족 학교나 제도권 교육의 확장 혹은 외국(특히 미국) 유학의 전단계로서의 축소된 형태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식 교육과 입시 교육에 특화되어 가는 기독교 대안 학교를 볼 때 그들에 비해 오히려 영성과 종교성을 중시하는 발도르프 교육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19) 루돌프 슈타이너